

현시기 기본건설에 대한 자금지출의 원칙과 중요방도

김 정 혁

우리 나라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기본건설에 대한 자금지출이 늘어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대전성기가 펼쳐지고있다.

기본건설은 사회주의적확대재생산의 높은 속도를 보장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한 물질적조건을 마련한다. 기본건설에 의하여 생산적 및 비생산적고정재산이 마련되고 인민경제의 기술적개건과 확장이 이루어진다.

기본건설자금은 인민경제에 대한 지출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확대재생산을 위한 기본건설자금을 바로 지출하여야 합니다.》(《김정일선집》 제13권 증보판 369페이지)

일반적으로 기본건설자금은 고정재산을 새로 조성하거나 이미 있는 고정재산을 확대하는데 쓰는 자금이다.

기본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데서 중요한것은 국가예산을 통하여 기본건설자금을 원만히 보장하는것이다.

중앙예산에서는 인민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국가적인 생산적건설에 대하여 기본건설자금을 보장하며 지방예산에서는 지방적의의를 가지는 작은 규모의 건설에 자금을 보장한다.

기본건설에 대한 자금지출에서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보다먼저 당의 로선과 정책에 철저히 기초하여 지출하는것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은 나라살림살이를 규제하는 근본척도로서 그것을 조직집행하며 총화하고 평가통제하는 기준이다. 이로부터 기본건설에 대한 자금지출은 당의 로선과 정책에 기초하고 그것을 구현하는 과정으로 일관되어야 한다.

기본건설에 대한 자금지출을 당의 로선과 정책에 따라 진행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요구를 관철하는것이다.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실현할수 있도록 자체의 자연부원을 개발리용하고 부문구조를 완비하는데 많은 기본건설자금을 지출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최첨단 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인민경제를 현대화하고 과학화할수 있도록 기술장비수준을 높이며 모든 부문의 생산과 경영활동을 새로운 과학적토대위에 올려세우는데 필요한 기본건설투자자금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기본건설에 대한 자금지출을 당의 로선과 정책에 따라 진행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우리 당의 강성국가건설로선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도록 하는것이다. 이것은 선군시대 강성국가건설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나라의 경제를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기본건설에 대한 자금지출에서 지켜야 할 원칙은 다음으로 생산적건설에 대한 자금지출을 빨리 늘여 비생산적건설에 비한 생산적건설의 우선적장성을 보장하는것이다.

비생산적건설에 비한 생산적건설의 더 빠른 속도를 보장하도록 자금지출방향을 설정하는것은 기본건설에 대한 자금지출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중요한 원칙의 하나이다.

생산적건설과 비생산적건설사이의 예산지출균형을 옳게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생산적건설에 대한 자금지출의 우위성과 선차성을 보장하면서 비생산적건설에 대한 자금지출을 옳게 배합하여야 한다.

생산적건설에 대한 자금지출과 비생산적건설에 대한 자금지출은 다같이 고정재산에 돌

러지는 국가자금의 지출로서 사회주의적축적을 실현하는 형태들이지만 그것이 사회적재생산에서 노는 역할은 서로 다르다.

생산적건설에 대한 투자는 생산적고정재산, 노동수단을 조성하는데 돌려지는 지출로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논다.

그러나 비생산적건설에 대한 자금지출은 비생산적고정재산을 조성하는데 돌려지는 지출로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물질적조건을 마련하는데 기여한다.

생산적건설에 대한 자금지출과 비생산적건설에 대한 자금지출의 이러한 호상관계와 차이점은 생산적건설에 대한 자금지출을 보다 중요시하는 립장과 관점을 가지고 생산적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먼저 떼여놓은 다음 비생산적건설에 지출할 몫을 규정하며 비생산적건설에 비한 생산적건설에 대한 자금지출의 장성속도를 앞세울것을 요구한다.

생산적건설에 대한 자금지출의 우위성을 보장한다는것은 결코 비생산적건설에 대한 자금지출을 무시하거나 약화시켜도 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생산적건설에 대한 자금지출의 우위성과 선차성은 반드시 비생산적건설에 대한 자금지출을 배합하여 그것을 다같이 빨리 늘이는 전제밑에서 이루어질것을 요구한다.

이로부터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를 비롯한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에 힘을 넣으면서 동시에 경공업과 농업에 대한 자금지출을 늘여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과학, 교육 등에 필요한 자금도 응당한 수준에서 보장하고있다.

기본건설에 대한 자금지출에서 지켜야 할 원칙은 다음으로 중요대상건설에 자금지출을 집중하여 조업기일을 앞당기도록 하는것이다.

자금지출의 분산성을 방지하고 선후차

를 엄격히 가르며 중요대상에 자금지출을 집중하는것은 기본건설분야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원칙이다.

건설작업은 일반공업생산과는 달리 작업장소가 고착되지 못하고 부단히 자리를 옮겨가면서 진행되며 일정한 시기에 기본건설에 돌릴수 있는 재정자원이 제한되고 자금이 많이 드는 특성이 있다. 이런 조건에서 일정한 기간에 기본건설대상을 한꺼번에 밀고나가면 자금이 분산된다. 이것은 중심고리를 놓치고 여러 대상에 력량을 분산시킴으로써 건설대상의 완공과 조업개시일을 지연시키며 설비, 자재, 자금의 낭비를 가져오고 자금지출의 효과성을 높일수 없게 한다.

기본건설에 대한 자금지출은 인민경제 전반의 균형을 고려하면서 중심고리를 이루는 중요대상과 긴급하게 제기되는 공사대상, 건설조건을 원만히 갖추고 자금지출의 효과를 볼수 있는 대상부터 우선적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주어진 자금을 가지고 방대한 기본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여 조업개시기일을 앞당기며 자금지출의 효과성을 높일수 있다.

우리 당은 지난 기간 기본건설자금을 지출하는데서 건설의 선후차를 가리고 중요대상건설에 자금지출을 집중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함으로써 건설대상의 조업기일을 앞당기고 자금지출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중요대상건설에 자금지출을 집중할데 대한 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자금지출대상을 바로 설정하여야 한다. 이것은 주어진 조건에서 건설의 선후차를 바로정하고 중요대상에 자금지출을 집중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일단 선정된 중요대상에 모든 자금원천을 총동원하여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것이 중요하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식으로 자금을 분산시키면 조월공사가 늘어나고 어느 한 대상도 조업기

일을 지킬수 없다.

기본건설에 대한 자금지출에서 지켜야 할 원칙은 다음으로 건설형태별자금지출의 분배를 합리적으로 하는것이다.

건설형태별자금지출방향은 개건, 확장, 신설로 구분된다.

건설형태들사이 지출액의 합리적인 분배는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의 효과적리용을 보장하면서 보다 긴요한 부문에 지출을 집중할수 있게 하며 적은 자금으로 지출의 효과를 최대한 높일수 있게 한다. 개건, 확장은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리용하는것만큼 신설에 비하여 지출도 적게 들고 건설기간도 빠르며 생산능력을 쉽게 늘일수 있다. 따라서 신설, 개건, 확장을 잘 배합하여야 한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것은 인민경제의 주체화의 요구에 맞게 자체자금에 의거하는 새로운 공업부문을 창설하고 생산공정을 정비보강하며 부문구조를 완비할데 대한 요구에 맞게 자금을 지출하는것이다.

오늘 건설형태별자금지출의 분배를 옳게 실현해나가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현존 경제토대를 정비하고 그 위력을 최대한 높이면서 인민경제전반을 최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하여 개건하며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을 착실히 해나가는것이다.

인민경제의 기술적개건을 옳게 실현해나가자면 모든 공장, 기업소들을 대담하게 현대적기술로 갱신해나가는데 필요한 자금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한 새로운 생산기지들을 일떠세우는데 필요한 자금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도록 기본투자를 옳게 실현하여야 한다.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한 새로운 생산기지들을 일떠세우는것은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토대를 보다 공고히 하고 그 우월성과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특히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산업구조

를 개선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그러자면 정보산업을 발전시키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정보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야 한다.

기본건설에 대한 자금지출을 바로하는 데서 중요한것은 기본건설자금지출규모를 바로 규정하는것이다.

기본건설자금지출규모는 기본건설자금지출계획과 맞물려 규정한다.

기본건설자금지출규모는 기본건설투자계획에 반영된 기본건설자금지출총액에서 기타 내부자금원천을 더는 방법으로 규정한다.

이것을 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기본건설자금지출총액=지난해말까지 받지 못한 자금+계획년도 투자액-다음해에 받을 자금

기본건설자금지출은 국가예산수입에서 지출예산에 규정된 기본건설자금을 우선적으로 떼여 원천돈자리에 적립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것은 축적의 몫을 우선적으로 떼여놓고 소비몫을 지출할데 대한 축적과 소비의 균형의 요구를 정확히 관철할수 있게 하며 건설계획을 무조건 수행할데 대한 요구에 맞게 기본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보장할수 있게 한다. 뿐만아니라 기본건설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남은 자금으로 모자라는 예산을 메꾸는 현상을 비롯하여 건설자금의 류용현상도 미리 막을수 있게 한다. 그리고 국가예산수입계획수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수 있게 한다.

기본건설자금원천돈자리에 자금을 적립하는 사업은 중앙예산의 경우에 재정성이 통일적으로 하며 지방예산의 경우에는 도, 시, 군단위로 인민위원회가 맡아한다.

이렇게 기본건설에 대한 예산한도를 기본건설자금원천돈자리에 넣어주면 중앙은행은 그 범위안에서 건설자금을 공급한다.

기본건설자금지출방법에는 국가예산으

로부터 기본건설자금을 시공주에게 직접 공급하는 방법과 건설주를 통하여 시공주에게 공급하는 방법이 있다.

국가예산으로부터 기본건설자금을 시공주에게 직접 공급하는 방법은 시공주기업소를 단위로 하여 자금공급계획을 세우고 중앙은행에 적립해놓은 기본건설자금원천돈자리를 통하여 공사실적에 따라 시공주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기본건설자금지출에서 복잡성을 피하고 시공주기업소의 자금리용에 대한 은행의 원에 의한 통제를 강화할수 있게 한다.

건설주를 통하여 시공주에게 기본건설자금을 공급하는 방법은 기본건설자금공급계획을 건설주기업소를 단위로 하여 세우고 건설주가 예산을 받아서 시공주에게 공급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서는 건설주기업소가 시공주기업소의 자금신청문건에 기초하여 국가예산으로부터 기본건설자금을 받아 건설

감독기관에서 확인한 공사실적에 따라 지불위탁 또는 지불청구의 방법으로 시공주에게 자금을 공급한다.

이 방법은 기본건설자금의 공급과 리용에서 건설주기업소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고 국가기본건설투자계획에 맞물린 대상에 대한 기본건설자금보장에서 재정기관의 통일적인 지도통제를 강화할수 있게 한다.

우리 나라 예산실천에서는 건설주가 기본건설자금을 국가예산에서 받아 시공주에게 주는 방법이 적용되고있다.

기본건설자금은 기본건설자금지출계획과 기본건설대상목록, 건설자금공급계획, 설계예산문건이 있고 건설 및 토지리용허가를 받은 대상에 대해서만 건설대상별, 현물단계별 공사실적에 따라 공급한다.

우리는 기본건설자금지출에서 나서는 원칙과 중요방도들을 잘 알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원대한 강성국가건설구상을 앞장에서 실현해나가야 한다.